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6.1

미 증시, 연준 위원 발언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 출회로 하락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경기 둔화 우려 속 차익 매물 출회되며 하락

•미 증시는 최근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출발. 특히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금융, 산업재, 에너지 업종도 약세. 장 중에는 제퍼슨 연준 이사를 비롯해 연준 위원들이 6월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낙폭 축소. 연준이 베이지북에서 경기의 위축과 인플레이션 둔화 등을 언급한 점도 영향. 그러나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회되며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를 보여 투자심리는 부진(다우 -0.41%, 나스닥 -0.63%, S&P500 -0.61%, 러셀2000 -1.00%)

특징 종목: 엔비디아, 마이크론 하락 Vs. 인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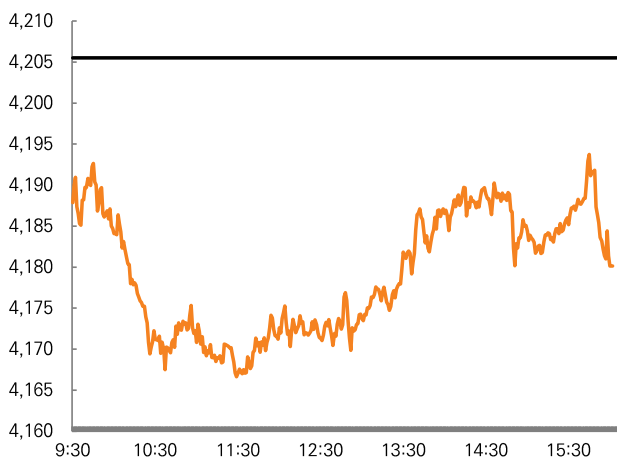
•엔비디아(-5.68%)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AMD(-5.64%)도 동반 하락. 마이크론(-5.64%)은 골드만삭스 글로벌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분기 가이드언스가 제시했던 수준에 일치했고, 높일 필요가 없다고 발표하자 하락. 암바렐라(-11.76%)는 예상보다 부진한 가이드언스 발표 후 급락. 휴렛패커드 엔터(-7.09%)와 휴렛패커드(-6.05%)는 부진한 매출 발표로 하락. 인텔(+4.83%)은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공급 업체 기반을 다각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인텔과 함께 제조할 수 있다고 발표한 후 3일 연속 상승 중. 이러한 차별화 속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1% 하락.

한국 증시 전망: 제한적인 하락 속 매물 소화 과정 진행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1.04%, MSCI 신흥 지수 ETF도 0.9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9.92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4% 하락. KOSPI는 0.5% 내외 하락 출발 예상.

•미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며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마이크론이 가이드언스 상향 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 휴렛패커드의 매출이 부진했던 점, 암바렐라의 부진한 실적 등 반도체 업종에 부정적인 요인이 유입된 점도 부담. 물론 인텔이 상승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1% 하락에 그쳤으나 차익 실현 욕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 한편, 중국 경기가 위축되고, 미국도 고용이 건고하나 세부적으로 보면 제조업 부문 등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점도 한국 증시에는 부담.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하락 출발 후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577.12	-0.32	상해종합	3,204.56	-0.61
KOSDAQ	856.94	+0.64	홍콩항셍	18,234.27	-1.94
DOW	32,908.27	-0.41	베트남	1,075.17	-0.27
NASDAQ	12,935.29	-0.63	유로스톡스 50	4,218.04	-1.71
S&P 500	4,179.83	-0.61	영국	7,446.14	-1.01
캐나다	19,572.24	-0.85	독일	15,664.02	-1.54
일본	30,887.88	-1.41	프랑스	7,098.70	-1.5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 경제지표 결과와 경기 그리고 연준

미국 4월 채용공고는 지난달 발표된 974.5만 건에서 1,010.3만 건으로 증가. 소매업이 이를 주도했으나 레저 및 접객업, IT와 제조업 부문은 감소. 이직자나 정리해고는 감소해 고용은 여전히 견조함을 보였으나, 산업과 관련된 제조업 등은 둔화되고 있어 경기 위축 우려를 높임. 한편, 5월 시카고 연은 제조업 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48.6을 크게 하회한 40.4로 발표해 운송 부문 생산 위축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런 가운데 5월 기관 투자자 심리지수인 스테이트 스테이트 투자자 신뢰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83.5에서 89.8로 개선. 다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고 있어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안전자산이 많음을 보여줌. 북미 지역은 은행 리스크 완화로 9.6p 상승한 85.1을 기록했고 아시아 지역은 글로벌 건축 종료 기대 등으로 11.8p 상승한 101.1을 기록. 그러나 유럽 지역은 경기 위축과 물가 등을 주목하며 11.3p 하락한 99.8로 전환.

이러한 지표 결과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줘 주식시장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했으며, 달러화와 엔화, 금, 채권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높임. CME FEDWatch에서는 오전 중 6월 금리인상 확률을 71%로 제시.

그러나 장종 필립 재퍼슨 연준 이사가 6월 금리를 동결하면 추가 긴축을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볼 것이라고 주장. 더불어 높은 물가가 부담이기는 하지만, 통화정책은 시차를 두고 작동하기 때문에 완전한 효과를 반영하기에 1년이라는 기간은 충분히 길지 않다고 주장하는 등 비둘기파적인 발언.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6월 회의에서 금리 결정을 건너뛸 수 있을 것 같으며 동결을 시사.

이런 가운데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최근 경제 활동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언급. 물론 소비 지출은 대부분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가격 민감도가 더 커졌다고 발표. 금융 여건은 연체가 증가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까워졌으며 대출 조건도 다소 엄격해졌다고 언급.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전보다 느리다고 발표했으며 인플레이션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발표.

이러한 연준 위원 발언과 베이지북 발표 후 CME FedWatch에서는 6월 금리인상 확률이 71%에서 28%로 급격하게 낮아졌으며 달러화는 강세폭 축소, 주가지수는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임.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엔비디아, 마이크론 하락 Vs. 인텔 상승

엔비디아(-5.68%)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AMD(-5.64%)도 동반 하락. 마이크론(-5.64%)은 골드만삭스 글로벌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분기 가이던스가 제시했던 수준에 일치했고, 회사는 이를 높일 필요가 없다고 발표하자 하락. 암바렐라(-11.76%)는 예상보다 부진한 가이던스 발표 후 급락. 휴렛패커드 엔터(-7.09%)와 휴렛패커드(-6.05%)는 부진한 매출 발표로 하락. 인텔(+4.83%)은 신제품 출시 지연 등으로 부진해 왔으나, 이미 반영이 되었다는 평가와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공급 업체 기반을 다각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인텔과 함께 제조할 수 있다고 발표한 후 3일 연속 상승 중. 이러한 차별화 속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1% 하락.

엑스모빌(-1.79%)등 에너지 업종은 중국 경제지표 둔화로 국제유가가 약세를 보인 여파로 하락. 캐터필러(-1.98%)등 기계업종, 3M(-2.83%)등 산업재, 페덱스(-3.61%)등 물류회사 그리고 JP모건(-1.27%)등 금융주 등은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자동차 부품업체인 어드밴스 오토파트(-35.04%)는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 배당금 삭감으로 급락. 오토존(-2.76%)도 동반 하락.

C3 AI(-8.96%)는 장중 차익 매물 출회되며 급락한 가운데 시간 외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가 예상을 하회하자 13% 하락. 세일즈포스(+2.06%)도 예상보다 견고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매출 전망 속 3% 하락 중. 소파이(+15.09%)는 부채한도 법안 표결에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을 끝내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급등.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53	대형 가치주 ETF (IVE)	-0.47
클린테크 ETF (CTEC)	-1.59	중형 가치주 ETF (IWS)	-1.03
소매업체 ETF (XLY)	-0.90	소형 가치주 ETF (IWN)	-1.28
온라인소매 ETF (EBIZ)	-0.12	대형 성장주 ETF (VUG)	-0.59
미국 인프라 ETF (PAVE)	-1.80	중형 성장주 ETF (IWP)	-0.75
핀테크 ETF (FINX)	+1.41	소형 성장주 ETF (IWO)	-0.68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57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96
클라우드 ETF (CLOU)	+1.98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1.06
사이버보안 ETF (BUG)	+1.50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58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1.76	미국 국채 ETF (IEF)	+0.38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1.09	하이일드 ETF (JNK)	-0.35
바이오섹터 ETF (IBB)	+0.09	신흥국 채권 ETF (EMBD)	+0.09
로봇&AI ETF (BOTZ)	-1.80	물가연동채 ETF (TIP)	+0.13
반도체 ETF (SMH)	-2.53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33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유틸리티	327.97	+0.96	-1.54	-6.36
헬스케어	1,486.28	+0.85	-1.69	-4.44
부동산	225.76	+0.65	+0.13	-4.64
필수소비재	757.09	+0.07	-2.07	-6.21
커뮤니케이션	210.66	-0.05	+1.41	+6.21
경기소비재	1,188.05	-0.92	+1.45	+3.09
IT	2,896.25	-1.09	+6.07	+9.29
소재	471.02	-1.12	-2.78	-7.11
금융	526.29	-1.22	-1.77	-4.56
산업재	816.88	-1.40	-1.83	-3.45
에너지	585.66	-1.88	-4.50	-10.61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제한적인 하락 속 매물 소화 과정 진행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1.04%, MSCI 신흥 지수 ETF도 0.9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9.92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4% 하락. KOSPI는 0.5% 내외 하락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가 부채 한도 협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분을 반납하거나 하락 전환한 여파로 부진. 특히 장중에 발표된 중국 경제지표 부진 이후 달러화와 연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이 부담으로 작용. 외국인은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순매수를 이어간 가운데 2차전지 업종도 매수세를 보여 하락은 제한됐으나, 업종 차별화는 진행. 결국 KOSPI는 0.32% 하락했으나, KOSDAQ은 0.64% 상승.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며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마이크론이 가이던스 상향 조절을 하지 않았다는 점, 휴렛팩커드의 매출이 부진했던 점, 암바렐라의 부진한 실적 등 반도체 업종에 부정적인 요인이 유입된 점도 부담. 물론 인텔이 상승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1% 하락에 그쳤으나 차익 실현 욕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

한편, 중국 경기가 위축되고, 미국도 고용이 견고하나 세부적으로 보면 제조업 부문 등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점도 한국 증시에는 부담. 이는 결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요인이기 때문. 더불어 이날 발표되는 한국 수출은 여전히 전년 대비 마이너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기업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이 높음.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하락 출발 후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채용공고, 소매업과 운수 창고 중심으로 견고

미국 4월 채용공고는 지난달 발표된 974.5만 건이나 예상했던 935만 건을 상회한 1,010.3만 건을 기록. 소매업이 20.9만 건, 운수창고가 15.4만 건, 교육, 의료가 16.5만 건 증가하며 이를 주도. 반면, 레저 및 접객업, IT, 제조업 부문은 부진.

5월 시카고 연은 제조업 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48.6이나 예상했던 47.0을 크게 하회한 40.4로 발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운송 부문 생산 위축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5월 기관 투자자 심리지수인 스테이트 스테이트 투자자 신뢰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83.5에서 89.8로 개선. 다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고 있어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안전자산 비중이 높음을 보여줌.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6월 금리인상 확률: 67%→71%→28%

국제유가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중국내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여기에 미국의 제조업지표들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수요 부문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하락 지속. 천연가스를 비롯해 가솔린 등 에너지 관련 품목도 수요 둔화 우려로 하락. 반면, 유럽 천연가스는 2021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후 오늘은 급격한 반등이 유입.

달러화는 고용지표가 견고한 가운데 중국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유입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임. 그렇지만, 장종 제퍼슨 연준 이사나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6월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강세폭이 축소.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유입되며 달러 대비 강세. 유로화는 예상보다 낮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로 달러 대비 약세.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약세

국채금리는 부채한도 협상 관련 기대를 반영하며 하락 출발 후 경기 침체 우려도 유입되며 하락세 지속. 더 나아가 장 초반 채용공고 증가를 이유로 6월 금리인상 확률이 CME FedWatch를 통해 70%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으나 장종 제퍼슨 연준 이사와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6월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점도 영향.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알루미늄은 상승했으나, 여타 금속은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곡물은 옥수수가 거시 경제적인 우려로 수요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자 하락. 반면, 밀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에 성공.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42%, 철근은 1.83%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8.09	-2.07	-6.71	Dollar Index	104.218	+0.05	+0.32
브렌트유	72.60	-1.63	-7.31	EUR/USD	1.0688	-0.44	-0.58
천연가스	2.27	-2.66	-2.41	USD/JPY	139.38	-0.29	-0.06
금	1,982.10	+0.21	-0.58	GBP/USD	1.2437	+0.19	+0.58
은	23.59	+1.68	+0.03	USD/CHF	0.9106	+0.52	+0.63
알루미늄	2,246.00	+0.99	+0.85	AUD/USD	0.6502	-0.23	-0.64
전기동	8,089.00	-0.42	-0.16	USD/CAD	1.3577	-0.18	-0.13
아연	2,248.50	-2.35	-5.23	USD/RUB	81.2679	+0.46	+1.02
옥수수	594.00	-0.17	+2.68	USD/BRL	5.0642	+0.53	+2.09
밀	594.25	+0.47	-4.58	USD/CNH	7.1181	+0.38	+0.74
대두	1,299.75	+0.23	-1.74	USD/KRW	1,327.20	+0.17	+1.10
커피	178.65	+0.88	-4.69	USD/KRW NDF1M	1,319.92	+0.14	+0.18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645	-4.21	-9.74	스페인	3.332	-5.60	-20.40
한국	3.520	-13.30	+1.30	포르투갈	3.023	-4.00	-21.30
일본	0.436	+0.10	+2.20	그리스	3.777	-2.30	-12.20
독일	2.282	-6.00	-19.00	이탈리아	4.081	-7.00	-25.7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